여행전문가 순창힐링 팸투어

군 초청… 향후 상품화 가능성

순창의 치유음식과 천혜의 자연 환경을 활용한 힐링여행 팸투어가 여행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돼 향후 상품화에 가능성을 열고 있다.

이번 순창힐리여행 팸투어는 29일부터 30일까지 여행전문 미디어 관계자 및 유명블로거 20여명이 참여했으며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순창의 자연에서 명상과 치유음식 등을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첫날인 29일에는 순창의 대표 힐링 관광지 강천산 명상 산책이 진행됐다. 강천산 산책길은 약 5㎞ 구간 황토에 모래가 잘다져 맨발로도 산책할 수 있는 길로 유명하다. 참가자들은 병풍폭포에서 구장군 폭포까지 계곡을 따라 나무가 빼곡한 숲길을 걸으며 자신만의 명상에 빠져 들었다.

저녁은 순창의 치유농장에서 펼쳐졌다. 순창에는 농업과 치유를 연계한 19개 치유농장이 운영 중이다.

이번 팸투어단은 그중 하나인 구림면의 우리농원 약선식을 맛보여 자연 그대로의 먹거리에서 마음의 휴식을 얻었다. 또 저녁에는 모닥불과 별빛을 보며 명상에 잠기는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30일에는 아침산책 및 섬진강 안개명상 일출명상이 진행된다.

팸투어단이 머문 향가오토캠핑장은 조용히 흐르는 섬진강에서 피어오르는 물안개와 일제 강점기에 세워진 향가목교가 어울려 환상적 분위기를 연출하는 곳이다. 이날은 풍산면에 위치한 가이아 농원에서 친환경 미나리 치유푸드 체험과 용궐산 치유의 숲에서 피리명상, 장군목 자연밥상 체험, 발효소스토굴명상 등이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팸투어는 군이 순창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힐링 자원을 도시민들에게 관광상품화 하기위해 추진했다.

군 관계자는 "순창은 자연 그대로의 자연과 그곳에서 나는 농특산물로 만든 치유음식 그리고 치유 프로그램 등 도시민들이 찾아와 몸과 마음의 휴식을 얻을 수 있는 자원이 풍부하다" 면서 "이번 팸투어는 여행상품화 가능성을 확인하고 순창을 홍보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군은 팸투어에 참여한 여행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유지해 향후 관광상품화를 추진해 갈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베트남 학교 지원사업 활발

제7회 해외교육봉사활동서 한국 문화 알려

남원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정덕주)가 최근 베트남에서 교육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해외 봉사활동은 2010년부터 실시해 올해 7회기를 맞이한 것으로 사단법인 한울안의 지원을 받아 실시했다.

봉사활동은 크게 물품 지원과 문화교육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베트남 동탑성 라이붕군에 위치한 라이붕군 초등학교와 던쯔엉1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장학금, 자전거, 학용품 지원을 하였으며 △한복을 입은 괜시우드 체험활동을 통해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남원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최근 베트남에서 교육 봉사활동을 펼쳤다.

봉사단을 맞이한 베트남 학생들은 미소 띤 얼굴로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봉사단은 라이붕군 교육청과 인민위원회도 방문하여 남원에 사는 다문화가족 자녀들과 베트남에 사는 청소년 모두를 글로벌 인재로 키우기 위한 민간교류의 토대를 쌓기 위해 노력하였다.

남원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앞으로 라이붕군 학교지원 뿐만 아니라 지역기관과의 교류도 꾸준히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정보와 남원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가족통합서비스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63-635-5474)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유영철 기자

류재복 제19대 대한노인회 팔덕면분회장 취임식

제19대 (사)대한노인회 팔덕면분회장으로 류재복(83) 회장이 취임했다.

지난 28일 팔덕면 복지회관에서는 제19대 팔덕면 노인회 류재복 노인회장 취임식이 진행됐으며 김봉호 대한노인회 순창군 노인회장을 비롯하여 기관단체장, 면내 경로당 회장, 내빈 등 70여명이 참석하여 신임 노인회장 취임을 축하했다.

류재복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사회적으로 노인회가 관심을 받고 있다며 가정과 사회의 어른으로써 솔선수범하여 사회에 봉사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사명을 다하자' 고 당부했다. 또한 '순창군 노인회와 유대를 강화해 팔덕노인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며 취임 소감을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희망복지지원단은 송동면 위기가정에 2호점을 추진하게 되어 지난 28일 행복나눔측량을 실시했다.

'내 마음속 愛 집이 나타났다'

남원시 · 국토정보공사 남원지사 후원 2호점 추진

남원시 희망복지지원단은 작년 3월 21일 초록우산전북지역본부와 위기가정지원 프로젝트 업무 협약을 하고 '내 마음속 愛 나눔 캠페인' 과 함께 위기가정 주거신축사업 '내 마음속 愛 집이 나타났다' 을 연속 추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작년 8월 31일 이백면 '내 마음속 愛 집이 나타났다' 1호점이 탄생하였으며, 금년에도 송동면 위기가정에 2호점을 추진하게 되어 한국국토정보공사 남원지사 후원으로 지난 28일 행복나눔측량을 실시했다.

행복나눔측량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회 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취약·소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무료로 추진하는 행복 나눔 경영 사업이다.

'내 마음속 愛 집이 나타났다' 2호점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가정으로 부모와 7명의 아이들이 좁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어, 주거신축을 통하여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라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남원시 주민복지과장은 "지속적인 민·관 협력으로 지역의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확보해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살기 좋은 남원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면 소재지 기초생활 거점지역 육성"

심민 임실군수 후보 공약

무소속 심 민 임실군수 후보가 농촌지역의 면 소재지를 경제성장 중심추로 만들어가는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을 약속했다.

심 후보는 28일 민선 6기에 활발하게 추진 중인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이어 민선 7기에는 총 사업비 240억원을 확보해 6개 면을 대상으로 한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추진, 기초생활거점지역으로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면 소재지 종합정비 대상지역은 성수면과 관촌면, 신평면, 신덕면, 덕치면, 지사면 등 6개 지역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4년 까지로 지역별로 각각 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심 후보는 이들 지역을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이 가능한 사회경제적 기능이 집적화된 소재지로 개발, 생산과 소비 중심지로 만들어갈 것을 강조했다.

이미 심 후보는 민선 6기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통해 2015년 임실읍과 청웅면 2곳에 140억 원을 시작으로, 2017년 강진면(60억원)과 2018년 삼계면까지 4개면에 총 사업비 260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뤄낸 바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메아리

순창군, 이동결핵검진 실시

순창군은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공동생활자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결핵 이동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동 결핵검진 대상자는 관내 고등학교 3개소 490명과 사회복지시설 10명 등 총 500여 명이다.

대한결핵협회전라북도지부 주관으로 결핵 조기발견과 발견환자 치료관리를 통해 결핵감염을 예방하고 확산 방지를 통해 결핵을 조기에 퇴치하는 등 군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이다.

또한 지역주민들 중 호흡기계통의 증상이 있거나 결핵환자와 동거하는 사람, 식욕부진, 체중감소, 피로, 평소에 기침이나 가래가 2주 이상 지속되는 주민, 또는 결핵검진을 원하는 주민은 증상이 없더라도 보건의료원 방문을 통하여 무료검진을 받을수 있다.

정영곤 보건의료원장은 "이번 이동검진 결과에서 결핵으로 진단되는 경우 환자 등록관리를 통해 무료투약과 철저한 추구관리로 치료성공률이 100% 완치될 수 있도록 치료할 방침이다" 며 "앞으로도 결핵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캠페인 및 홍보를 통해 결핵발병 사전예방과 전파차단에 최선을 다 해 결핵없는 건강한 순창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덕치면 행복보장협의체 발대식

임실군 덕치면(면장 김재기)은 덕치면 사무소에서 '덕치면행복보장협의체' 위원 등 17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기 덕치면행복보장협의체 발대식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덕치면행복보장협의체는 공동(공공,민간)위원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기관종사자, 복지이장, 지역주민, 사회보장업무 담당자 등 지역실정에 밝고 열의가 있는 자로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020년 4월 30일까지이며 앞으로 2년간 지역복지를 위해 열심히 뛸 전망이다.

김재기 공공위원장은 "형식적인 협의체가 아닌, 손과 발로 뛰는 협의체로 운영되어 우리지역 내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되기를 희망한다"며 "단순한 지역주민 대표들의 모임이 아닌 인적 안적망의 역할을 수행하여 우리 지역민의 행복을 책임지는 협의체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덕치면행복보장협의체는 지난 달 11일 진행한 제2회 '7080 소풍 가는 길' 섬진강변 걷기행사를 시작으로 소소한 생활민원해결을 위한 수리수리 다수리 사업과 '깔go, 바르go' 도배·장판 교체 사업 등 지역사회에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